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박 하 연¹⁾ 김 대 웅²⁾ 이 강 이³⁾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학부모교육참여패널 4차년도(2020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모형 적합도와 주요 변인 간 경로를 확인하고, 효과분해 및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주된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이용하는 어머니는 오프라인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어머니보다 양육역량이 높았고, 양육역량이 증가할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취업모의 경우,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면 양육역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반면 비취업모의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 이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교육정보의 가치와 가용성이 점차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직업역할과 학부모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역할과중을 경험하는 취업모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정보채널, 양육역량,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취업모, 다집단 분석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NRF-2017S1A5B8A02072579)임.

-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daewoong@snu.ac.kr)
-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학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자녀의 진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할수행 과제에 직면한다. 특히 자녀교육을 향한 관심이 지대한 한국사회에서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면서 공급자이고(이강이, 최인숙, 2012), 주로 여성이 도맡아온 지위(이성숙, 임성택, 2018; 이종각, 2014)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학부모역할은 무게감을 가진다. 더욱이 초등학교 4학년은 고학년 전이기로써 어머니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더욱 늘어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머니들은 자녀가 4학년에 진급한 후 부담감과 불안이 늘어났다고 밝히며, 4학년 시기는 5, 6학년을 대비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관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최정아, 이재림, 김영선, 2021).

학부모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녀교육정보의 습득이 중요하다. 부모라는 조건 자체가 양육정보를 찾는 핵심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Walker, 2012), 학부모역할 역시 방대한 자녀교육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됨을 유추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사교육 기관, 교육 정책과 교육 트렌드 등 자녀의 학업과 입시 전반에 걸친 교육정보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습득한다(강문정, 강대중, 2017). 이러한 교육정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데, 대표적으로

자녀의 학교, 주변 학부모와 같은 오프라인 채널, 소셜미디어 또는 온라인 카페와 같은 온라인 채널,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 채널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채널은 오프라인 구전 채널이나 대중매체 채널로 이원화되어 다루어져 왔으나(Rogers, 1999), 오늘날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따라 온라인 채널 역시 핵심적인 정보채널로 인식된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기관 방문 등의 면대면 정보 습득만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킹을 활용한 가속화된 정보 습득을 추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양육이 보편화되었고(민정원, 권미경, 윤지연, 2014),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채널의 고유한 영향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학부모는 특정 채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정보채널을 선택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서(Hardy, 1982) 학부모는 다양한 개인적 요구와 상황, 비용과 장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결정한다. 그러나 학부모로서 어떠한 정보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진 바가 없다. Jang, Hessel과 Dworkin(2017)은 부모가 육아정보를 얻기 위해 점점 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의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넘어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떤 채널과 기술을 사용할 때 더 도움을 얻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뜻에 동참하고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추세를 반영하여, 자녀교육정보채널을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관련있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채널로 정의하고, 주된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학부모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선택은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비롯한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할 때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여 정보를 추구하는 어머니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연구는 어머니가 정서적 안정과 유능감의 경험을 밝혔다고 보고하였다(Xie, He, Burnett, & Cheng, 202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블로그 채널 사용이 양육 스트레스 경감에 유의한 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McDaniel, Coyne, & Holmes, 2012). 유사한 맥락에서 대중매체는 접근이 용이하고 친숙한 정보채널이란 점에서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및 교육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Sanders & Prinz, 2008). 반면 오프라인 채널의 대표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학부모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교류함에 따라 과도한 학습정보에 노출되고 부담과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김수지 등, 2015). 강문정과 강대중의 연구(2017)에 따르면 어머니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자녀 학습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도움을 얻고, 학원으로

부터 유용한 교육정보를 얻을 때 안도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비교경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어머니들의 대중매체를 향한 불신(Dobele, Fry, Rundle-Thiele, & Fry, 2017)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비교심리(Chae, 2015; De los Santos, Amaro, & Joseph, 2019)를 지적하며 오히려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의 사용이 역할 스트레스의 해소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등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들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적다. 역할 스트레스는 그 역할에서 비롯된 과제와 변화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넘어서는 때 발생한다(Hong & Liu, 2021). 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특정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도전이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고 높은 정서적 각성과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Bandura, 1982). 즉 학령기 자녀를 둔 양육자이자 학부모인 어머니가 충분한 양육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학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낄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역량과 숙달감은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여 스트레스를 능숙히 다루고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끈다(Raikes & Thompson, 2005).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역량(Bloomfield & Kendall, 2012; Hong & Liu, 2021)과 가족역량(Gleeson, Hsieh, & Cryer-Coupet, 2016)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

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어머니의 정보습득과 이용 양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육역량이란 긍정적 양육과 관련된 능력이자,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한다(정계숙, 최은실, 2013; Johnson, Berdahl, Horne, Richter, & Walters, 2014). Bandura(1982)는 효능감의 기반이 되는 주요 출처로 숙달과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에서 정보를 찾을 때 경험하게 되는 요소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교육정보와 더불어 다른 학부모의 성공담이나 양육 방법의 공유는 부모에게 대리적 경험과 설득의 요소를 제공하며 효능감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김미혜, 김희진, 2007). 또한 여성학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온라인 채널이 활발한 정보공유의 장(場)이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 특히 어머니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도구로 기능해왔다고 바라본다(Madge & O'Connor, 2006; Mađra-Sawicka, Nord, Paliszkiewicz, & Lee, 2020). 즉, 정보습득은 양육역량 함양의 주요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습득을 위한 매체 선택은 양육역량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는 미디어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자기주장을 펼치고 다른 어머니와 소통하며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해가는 주체로 인식된다(Valtchanov, Parry, Glover, & Mulcahy, 2014). 자녀교육정보채널과 양육역량의 직접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김미혜, 김희진, 2007),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채널 사용(Rahayu & Haningsih, 2021)과 대중매체를 통한 육아정보 노출(Filik-Uyanık & Demircan, 2021)은 양육역량의 증진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ang과 동료들(2017)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뉴스나 이메일을 통해 양육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기존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정보습득이 양육역량 함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으며,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이 양육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자녀교육정보채널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를 양육역량이 매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자녀교육정보채널과 양육역량의 직접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이 연구는 자녀교육정보채널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를 양육역량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어머니가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사용하여 자녀교육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양육역량의 향상을 이끌고, 이는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감소로 이어지리라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존재한다. 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개인이 선택한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달라지게 하는 개인의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해왔다(Valkenburg, Peter, & Walther, 2016).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의미를 넘어 개인의

역할수행,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의 어머니를 향한 이상화된 담론 중 하나는 전문지식과 광범위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헌신하는 집중적 모성(intensive mothering; Hays, 1996)이라고 할 수 있다.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에는 어머니는 자녀 중심이어야 하고, 전문가처럼 지도하며 일관된 지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녹아있다(Rizzo, Schiffrin, & Liss, 2013). 집중적인 어머니 역할은 어머니의 정보력을 전제로 실현되고, 시간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압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 집중적 모성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때로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느낌을 받는 등 더 많은 복잡성을 경험할 우려가 제기된다(Haslam, Tee, & Baker, 2017; Lamar, Forbes, & Capasso, 2019; Odenweller et al., 2020; Walls, Helms, & Grzywacz, 2016). 결과적으로 취업모는 비취업모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집중적 모성에 대해 접근하고 재정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 통근하면서 자녀와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신 온라인이나 대중매체 채널을 사용하여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좋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수행할 수 있다. Chan(2008)은 홍콩의 취업모 집단이 육아 웹사이트에 참여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가상 공간이 취업모에게 유급 노동과 가사수행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위안과 성공경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즉 다중역할을 수

행하는 취업모에게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심리적 기제가 중요해지며, 결과적으로 자녀교육정보채널의 선택과 양육역량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 취업 여부를 고려하여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선적 교육정보채널의 사용이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혼재된 견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기 가족 및 교육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학부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머니 학부모가 겪는 심적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에서 취업 여부(취업/비취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학부모교육참여패널 4차년도(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부모교육참여패널은 한국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N = 300)

변수	구분	빈도/평균
자녀 성별	여아	160명 (53.3%)
	남아	140명 (46.7%)
어머니 연령		41.1세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명 (13.3%)
	2~3년제 대학 졸업	83명 (27.7%)
	4년제 대학 졸업	172명 (57.3%)
	대학원 졸업	5명 (1.7%)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명 (13.0%)
	2~3년제 대학 졸업	61명 (20.3%)
	4년제 대학 졸업	186명(62.0%)
	대학원 졸업	14명 (4.7%)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152명 (50.7%)
	비취업	148명 (49.3%)

사회의 맥락에서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참여 특징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구축된 종단 자료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할당 표집을 하였고, 자녀 성별과 맞벌이 여부를 고려한 균등비율 표집이 이루어졌다. 첫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2017년 3월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후 자녀의 진급에 맞추어 2020년 4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4차년도의 전체 어머니 응답자 308명 중에서 자녀교육정보채널을 알아본 문항에 대해 기타 범주로 응답한 8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총 300명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자녀 성별의 경우 여아

는 160명, 남아는 140명으로 집계되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1세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57.3%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교육수준 역시 4년제 대학 졸업이 62.0%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는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모 152명, 비취업모 14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

자녀교육정보채널

자녀교육정보채널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한 1순위 응답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학교, 주변 학부모, 사설학원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를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블로

그, 인스타·페이스북 등 SNS)와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육아서적 등)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를 온라인 및 대중매체로 구분하였다(0: 오프라인, 1: 온라인 및 대중매체).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어머니는 176명,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어머니는 124명이었다.

양육역량

양육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한 ‘부모 참 역량’ 척도를 정계숙, 박희경과 차지량(2016)이 단축형으로 타당화한 척도에서 ‘양육역량’에 해당하는 8개의 하위요인, 총 2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은 자녀 발달 특징·육구 이해, 부모-자녀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 삶과 양육의 방향·목표설정, 민주적 양육, 반응적·공감적 양육, 자녀 생애 진로 개발, 발달·학습 지원 환경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3문항으로 구성된다. 양육역량을 측정하는 문항 예시에는 ‘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식을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적절하게 활용한다’, ‘나는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강희경(2003)이 개

발하고 타당화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영역 중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영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예시는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학부모 역할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의 17문항은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이용하여 3개의 측정변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단일요인의 변수를 분석할 때 추정 모수가 늘어나 표준오차가 커지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Kishton & Widaman, 1994).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으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 ~ .87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통제변인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자녀 성별(0: 여아, 1: 남아), 어머니 연령,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0: 4년제 대학 졸업 해당 없음, 1: 4년제 대학 졸업 해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 특정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에 근거하였다(Plantin & Daneback, 2009).

3. 자료분석

자료는 Stata version 1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연구변인에 대해 기술통계 값을 산출하고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일반적 경향 및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역량 및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잠재변인들이 적합한 측정변인들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 검증으로 모형 적합도와 연구 변인들 간 경로를 확인하였다. 셋째, 구조모형 경로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매개변인에 대해 효과분해 및 부트스트래핑(표본 수 5,000)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2 참조). 먼저 어머니가 1순위로 이용하는 자녀교육정보채널은 취업모의 경우 오프라인 89명(58.5%), 온라인 및 대중매체 63명(41.5%)으로 나타났고, 비취업모의 경우 오프라인 87명(58.8%), 온라인 및 대중매체 61명(41.2%)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자녀교육정보수집 채널은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띄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 평균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 3.64($SD = .46$), 3.68($SD = .41$)로 비교적 높았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평균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 2.72($SD = .62$), 2.74($SD = .64$)로 중간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두 변인 모두 취업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가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r = -.13, p < .05$), 양육역량과는 정

표 2.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측정변인		취업모	비취업모	t	왜도	첨도
		$N(\%) / M(SD)$	$N(\%) / M(SD)$			
자녀교육 정보채널	오프라인	89 (58.5%)	87 (58.8%)			
	온라인 및 대중매체	63 (41.5%)	61 (41.2%)			
양육역량		3.64 (.46)	3.68 (.41)	.72	-.16	3.90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2.72 (.62)	2.74 (.64)	.25	-.23	2.93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1 자녀교육정보채널	-		
2 양육역량	.17**	-	
3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13*	-.37***	-

* $p < .05$. ** $p < .01$. *** $p < .001$.

적 상관을 보고하였다($r = .17, p < .01$). 또한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7, p < .001$). 이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1순위로 이용하는 어머니는 오프라인 채널을 1순위로 이용하는 어머니보다 양육역량이 높고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모형 검증

어머니 양육역량 및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에 의해 타당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 개의 측정변수가 양육역량 요인에 부하되고, 세 개의 측정변수가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요인에 부하되는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적합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및 적합도 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i>B</i>	<i>S.E.</i>	β
양육역량	양육역량1	1		.80
	양육역량2	1.06***	.06	.89
	양육역량3	.96***	.06	.85
	양육역량4	.96***	.06	.83
	양육역량5	.85***	.07	.68
	양육역량6	.94***	.06	.78
	양육역량7	.97***	.07	.71
	양육역량8	.83***	.06	.76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1	1		.61
	학부모역할 스트레스2	1.23***	.12	.80
	학부모역할 스트레스2	1.22***	.14	.81
χ^2	<i>df</i>	TLI	CFI	RMSEA
117.86	43	.952	.962	.076

*** $p < .001$.

도는 $\chi^2 = 117.86(df = 43, p < .001)$, TLI = .952, CFI = .962, RMSEA = .076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61~.89로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hi^2 = 186.00(df = 92, p < .001)$, TLI = .944, CFI = .953, RMSEA = .058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경로별 모수추정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았으며($\beta = .18, p < .01$),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beta = -.43, p < .001$). 자녀교육정보채널이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접 경로를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해 및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95% CI: [-.13, -.02])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표 6 참조).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이 양육역량을 매개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취업 여부에 따른 모형 동일성 검증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동일성 검증을 통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측정척도를 동일하게

표 5.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B	S.E.	β
자녀교육정보채널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06	.06	-.06
자녀교육정보채널 → 양육역량	.16**	.05	.18
양육역량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47***	.08	-.43

** $p < .01$. *** $p < .001$.

표 6.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녀교육정보채널 → 양육역량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08	.03	-.13	-.02

표 7. 모형 동일성 검증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기저모형	186.00	92	0.944	0.953	0.058		
형태동일성 모형	303.20	184	0.930	0.942	0.066		
측정동일성 모형	309.46	193	0.935	0.943	0.064	6.26	9
구조동일성 모형	456.60	219	0.883	0.883	0.085	147.14***	26

*** $p < .001$.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조동일성 검증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구조모형이 통계적으로 다르며,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변인 간 영향력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측정동일성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구조모형을 살펴보았다.

취업 여부에 따른 구조적 관계 차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구조모형에서 보고된 경로별 모수추정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취업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취업모가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1순위로 이용할 경우 양육역량이 높았으며($\beta = .21$, $p < .05$),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beta = -.52$, $p < .001$). 간접 경로를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95% CI: [-.19, -.01])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표 9 참조). 즉 취업모의 자녀교육정보채널이 양육역량을 매개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비취업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비취업모의 자녀교육정보채널이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 $p < .001$).

표 8. 어머니 취업여부별(취업모/비취업모)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취업모			비취업모		
	B	$S.E.$	β	B	$S.E.$	β
자녀교육정보채널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03	.08	.04	-.13	.09	-.13
자녀교육정보채널 → 양육역량	.20*	.08	.21	.12	.07	.14
양육역량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51***	.10	-.52	-.41***	.12	-.33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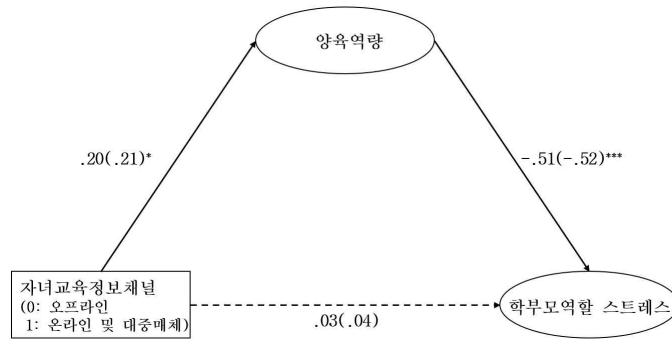


그림 1. 취업모 집단 구조모형

* $p < .05$. *** $p < .001$.

표 9. 취업모 집단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녀교육정보채널 → 양육역량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10	.05	-.1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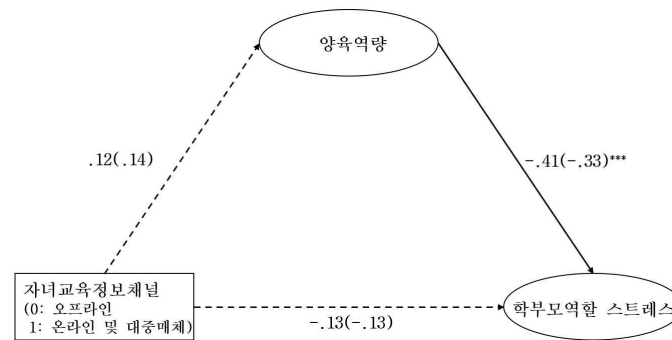


그림 2. 비취업모 집단 구조모형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 이러한 관계가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주요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역량이 증가하고, 양육역량이 높아질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줄어

든다. 즉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은 양육역량을 매개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이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미혜, 김희진, 2007; McDaniel et al., 2012; Xie et al., 2021). 이 연구 분석 결과,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1순위로 활용하는 학부모가 오프라인을 1순위로 활용하는 학부모보다 양육역량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주요한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이용하는 어머니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대리적인 경험을 하거나 이를 직접 실천하면서 양육역량의 향상을 경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김미혜, 김희진, 2007). 어머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녀교육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양육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역량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를 비롯하여 여성 집단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주제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온 관계이기도 하다(Madge & O'Connor, 2006; Mađra-Sawicka et al., 2020; Valtchanov et al., 2014). 또한 대중매체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온 만큼 개인의 전문성과 신념, 태도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Igbinoba et al., 2020). 어머니는 TV와 라디오, 서적 등의 매체를 통해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실천 방법을 새롭게 배

우거나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양육역량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의 주요 출처로 기능하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양육에 개입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다(Sanders & Prinz, 2008).

한편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가족의 삶에 만연하고 때로 포화되어 있는 현상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손쉽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크게 놀랍지 않다(Wolfers & Schneider, 2021). 그러나 이들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선택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간 관계를 이해할 때 양육역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양육역량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Bloomfield & Kendall, 2012; Hong & Liu, 2021; Raikes & Thompson, 2005)와 맥락을 같이한다. 역량감이 높은 어머니는 새로운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인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능숙히 다루고 해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Bandura, 1982; Raikes & Thompson, 2005), 어머니가 학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수행과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전자가 부모로서 갖춘 지식과 태도, 수행 능력 등을 아우르는 심리적 지표라면(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후자는 특정 역할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려는 요구에서 발생하는 한정된 범

위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학부모 위상을 고려할 때,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부모역할은 일상에서 실천하고 성찰해야 하는 하나의 정체성이기도 하다(강문정, 강대중, 2017). 이러한 관계성을 고려하면,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양육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의 주요 정체성 중 하나인 학부모역할 수행에서 비롯된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주요 변인 간 관계가 달라지며, 구체적으로 취업모가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면 양육역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반면 비취업모의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 이용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는 온라인이나 대중매체 채널을 통한 어머니의 정보수집이 양육역량의 증진(김미혜, 김희진, 2007; Filik-Uyanık & Demircan, 2021; Rahayu & Haningsih, 2021)과 정서적 안정(McDaniel et al., 2012; Xie et al., 2021)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서, 어머니가 학부모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업 여부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서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는 어머니의 교육정보습득과 같은 교육적 참여 및 지원과 맞닿아있다. Lehner-Mear(2021)는 오늘날의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의 숙제와 학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신을 집중적인, 좋은 어머니로 정의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모성

관념은 일부 어머니로부터 비판받지만, 다른 어머니로부터는 존중받으면서 모순적이고 경쟁적으로 발전해왔고,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노릇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Pedersen, 2016; Pedersen & Smithson 2013).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취업모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관념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낀다(Haslam et al., 2017; Lamar et al., 2019; Odenweller et al., 2020; Walls et al., 2016). 한국사회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정보를 얻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유용하고 믿음직한 자신의 채널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취업모에게 온라인과 대중매체 채널은 주변의 압력과 판단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공간과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때 취업모는 좋은 어머니의 개념을 자신에게 유리하고 적합하게 재해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Johnston과 Swanson(2007)은 취업모가 집중적 모성을 이용가능성의 특성만이 아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으로 재정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는데, 유사한 맥락에서 Chan(2008)은 취업모가 육아 관련 온라인 카페에 접속하면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 정체성을 수행한다고 인식함을 강조하였다. 즉 취업모가 시간과 에너지 사용에 부담을 주는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사용해서 교육정보를 습득한다면, 자신이 놓인 맥락에서 집중적 모성을 해석하고 달성함으로써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역량의 향상을 경험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이 연구의 결과에서 비취업모가 자녀

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양육역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양육역량의 증가만이 직접적으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해 다른 학부모나 교육관계자 등 지인으로부터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Loudon, Buchanan, & Ruthven, 2016), 비취업모는 사회문화적 관념으로부터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Odenweller & Rittenour, 2017). 비취업모 자신도 좋은 어머니의 개념을 전업주부로 정체화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수집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취업 어머니와 대비시키는 특성을 보인다(박혜경, 2009). 이는 비취업모가 자녀교육정보 습득을 위해 특정 채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유능함에 대한 고민과는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비취업모는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모성을 다방면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데, 이는 시간과 에너지 사용의 문제만은 아니다. 박혜경(2009)은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취업모가 부족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진정한 내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을 보이며, 별도의 친밀한 모임은 전업주부를 주축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비취업모가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할 때 받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의 형성, 대리적 경험의 기회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비취업모가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서 취업모와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고(여민선, 배소영, 2016), 이는 비취업모 양육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이 취업모에게 헌신적 양육의 일면으로서 자녀교육정보수집을 지원하고 주변의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학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교육정보채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양육역량의 향상이 학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방안임을 보여준다. 종합했을 때, 어머니가 지각하는 학부모역할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모에게는 온라인이나 대중매체 채널을 활용하여 자녀교육 관련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과 더불어 채널 내에서 학부모 간 소통을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비취업모의 정보채널 이용 동기나 관련 효과를 밝히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학부모가 주로 활용하는 자녀교육정보채널을 온라인 및 대중매

채와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부모가 우선적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학부모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의 정보가 신뢰성이 높아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접근성이 높으므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채널의 종류와 함께 채널 선택의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자녀교육정보채널을 측정함에 있어 어머니의 1순위 응답에 기반한 단일문항을 사용함으로써 채널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몰입도, 다채널 이용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하나의 매체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여러 매체를 동시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민정원 등, 2014) 이러한 현상은 자녀교육정보채널을 이용하는 어머니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유형의 매체 중에서도 개인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채널이 가지는 심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나, 후속 연구에서는 채널 이용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채널의 경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 각 플랫폼이 가지는 성격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채널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자녀교육정보의 가치와 가용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채널이 양육역량을 매개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모의 정보수집에 관한 기존 연구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한계(Jang et al., 2017)를 넘어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부모역할과 직업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역할과중을 겪는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문정, 강대중 (2017).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 상위권 자녀를 둔 서울 거주 중산층 엄마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4(2), 63-87.
- 강희경 (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개발. *가정과삶의질연구*, 21(2), 31-38.
- 김미혜, 김희진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육아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현황과 사회적 지지 및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7.
- 김수지, 송승민, 도현심, 신나나, 김민정, 김은혜 (2015). 학령기 전환 자녀의 어머니 역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 36(2), 111-130.
<https://doi.org/10.5723/KJCS.2015.36.2.111>
- 민정원, 권미경, 윤지연 (2014).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혜경 (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5-33.
- 여민선, 배소영 (2016).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171-179.
<https://doi.org/10.14400/JDC.2016.14.9.171>
- 이강이, 최인숙 (2012). 학부모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 연구센터.
- 이성숙, 임성택 (2018). 학모(母)가 지각한 가사 및 양육분담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학모(母) 효능감의 조절효과. *학부모연구*, 5(1), 39-59.
- 이종각 (2014). 학부모학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학부모연구*, 1(1), 1-20.
- 정계숙, 박희경, 차지량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36(2), 535-560.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초등학교 전이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검증. *인간발달연구*, 26(4), 115-138.
<https://doi.org/10.15284/kjhd.2019.26.4.115>
- 최정아, 이재림, 김영선 (2021).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과 모-자녀 관계의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4), 157-185.
<https://doi.org/10.15284/kjhd.2021.28.4.157>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https://doi.org/10.1037/0003-066X.37.2.122>
- Bloomfield, L., & Kendall, S. (2012).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child behaviour before and after a parenting programme. *Primary Health Care Research & Development*, 13(4), 364-372.
<https://doi.org/10.1017/s1463423612000060>
- Chae, J. (2015). “Am I a better mother than you?” Media and 21st-century motherhood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comparison theory. *Communication Research*, 42(4), 503-525.
<https://doi.org/10.1177/0093650214534969>
- Chan, A. H. N. (2008). ‘Life in happy land’: Using virtual space and doing motherhood in Hong Kong. *Gender, Place & Culture*, 15(2), 169-188.
<https://doi.org/10.1080/09663690701863281>
- De los Santos, T. M., Amaro, L. M., & Joseph, N. T. (2019). Social comparison and emotion across social networking sites for mothers. *Communication Reports*, 32(2), 82-97.
<https://doi.org/10.1080/08934215.2019.1610470>
- Dobele, A., Fry, J., Rundle-Thiele, S., & Fry, T. (2017). Caring for baby: What sources of

- information do mothers use and trust?.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31(7), 677-689.
<https://doi.org/10.1108/JSM-02-2015-0104>
- Filik-Uyanık, R., & Demircan, H. Ö. (2021). Mass media and intensive mothering predict motivators of mother engagement in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8), 1895-1909.
<https://doi.org/10.1007/s10826-021-02003-4>
- Gleeson, J. P., Hsieh, C. M., & Cryer-Coupet, Q. (2016). Social support, family competence, and informal kinship caregiver parenting stress: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resour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7, 32-42.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16.05.012>
- Hardy, A. P. (1982). The selection of channels when seeking information: Cost/benefit vs least-effort.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18(6), 289-293.
[https://doi.org/10.1016/0306-4573\(82\)90014-0](https://doi.org/10.1016/0306-4573(82)90014-0)
- Haslam, D. M., Tee, A., & Baker, S. (2017). The use of social media as a mechanism of social support in par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7), 2026-2037.
<https://doi.org/10.1007/s10826-017-0716-6>
-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ong, X., & Liu, Q. (2021).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elf-efficacy in Chinese families: Does the number of children matter?.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1(14), 2269-2280.
<https://doi.org/10.1080/03004430.2019.1702036>
- Igbinoba, A. O., Soola, E. O., Omojola, O., Odukoya, J., Adekeye, O., & Salau, O. P. (2020). Women's mass media exposure and maternal health awareness in Ota, Nigeria. *Cogent Social Sciences*, 6(1), 1766260.
<https://doi.org/10.1080/23311886.2020.1766260>
- Jang, J., Hessel, H., & Dworkin, J. (2017). Parent ICT use, social capital, and parenting effic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395-401.
<https://doi.org/10.1016/j.chb.2017.02.025>
- Johnson, B. D., Berdahl, L. D., Horne, M., Richter, E. A., & Walters, M. (2014). A parenting competency model. *Parenting*, 14(2), 92-120,
<https://doi.org/10.1080/15295192.2014.914361>
- Johnston, D. D., & Swanson, D. H. (2007). Cognitive acrobatics in the construction of worker-mother identity. *Sex Roles*, 57(5), 447-459.
<https://doi.org/10.1007/s11199-007-9267-4>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3), 757-765.
<https://doi.org/10.1177/0013164494054003022>
- Lamar, M. R., Forbes, L. K., & Capasso, L. A. (2019). Helping working mothers face the challenges of an intensive mothering cultur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41(3), 203-220. <https://doi.org/10.17744/mehc.41.3.02>

- Lehner-Mear, R. (2021). Good mother, bad mother?: Maternal identities and cyber-agency in the primary school homework debate. *Gender and Education, 33*(3), 285-305. <https://doi.org/10.1080/09540253.2020.1763920>
- Loudon, K., Buchanan, S., & Ruthven, I. (2016).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s of first-time mothers. *Journal of Documentation, 72*(1), 24-46. <https://doi.org/10.1108/JD-06-2014-0080>
- Madge, C., & O'connor, H. (2006). Parenting gone wired: Empowerment of new mothers on the internet?. *Social & Cultural Geography, 7*(2), 199-220. <https://doi.org/10.1080/14649360600600528>
- Mađra-Sawicka, M., Nord, J. H., Paliszkiewicz, J., & Lee, T. R. (2020). Digital media: Empowerment and equality. *Information, 11*(4), 225-236. <https://doi.org/10.3390/info11040225>
- McDaniel, B. T., Coyne, S. M., & Holmes, E. K. (2012). New mothers and media use: Associations between blogging, social networking, and maternal well-be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6*(7), 1509-1517. <https://doi.org/10.1007/s10995-011-0918-2>
- Odenweller, K. G., & Rittenour, C. E. (2017). Stereotypes of stay-at-home and working mother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82*(2), 57-72. <https://doi.org/10.1080/1041794x.2017.1287214>
- Odenweller, K. G., Rittenour, C. E., Dillow, M. R., Metzger, A., Myers, S. A., & Weber, K. (2020). Ambivalent effects of stay-at-home and working mother stereotypes on mothers' intergroup and interpersonal dynamic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20*(1), 16-35. <https://doi.org/10.1080/15267431.2019.1663198>
- Pedersen, S. (2016). The good, the bad and the 'good enough' mother on the UK parenting forum Mumsnet.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59*, 32-38. <https://doi.org/10.1016/j.wsif.2016.09.004>
- Pedersen, S., & Smithson, J. (2013). Mothers with attitude - How the Mumsnet parenting forum offers space for new forms of femininity to emerge onlin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8*, 97-106. <https://doi.org/10.1016/j.wsif.2013.03.004>
- Plantin, L., & Daneback, K. (2009). Parenthood, information and support on the internet.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parents and professionals online. *BMC Family Practice, 10*(1), 1-12. <https://doi.org/10.1186/1471-2296-10-34>
- Rahayu, N. W., & Haningsih, S. (2021). Digital parenting competence of mother as informal educator is not inline with internet ac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Computer Interaction, 29*, 100291. <https://doi.org/10.1016/j.ijcci.2021.100291>
-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26*(3), 177-190.

- <https://doi.org/10.1002/imhj.20044>
- Rizzo, K. M., Schiffrin, H. H., & Liss, M. (2013). Insight into the parenthood paradox: Mental health outcomes of intensive mother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5), 614-620.
<https://doi.org/10.1007/s10826-012-9615-z>
- Rogers, E. M. (1999). Anatomy of the two subdisciplines of communication stud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5(4), 618-631.
<https://doi.org/10.1111/j.1468-2958.1999.tb00465.x>
- Sanders, M. R., & Prinz, R. J. (2008). Using the mass media as a population level strategy to strengthen parenting skill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3), 609-621.
<https://doi.org/10.1080/15374410802148103>
- Valkenburg, P. M., Peter, J., & Walther, J. B. (2016). Media effects: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1), 315-338.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22414-033608>
- Valtchanov, B. L., Parry, D. C., Glover, T. D., & Mulcahy, C. M. (2014). Neighborhood at your fingertips: Transforming community online through a Canadian social networking site for mothers. *Gender, Technology and Development*, 18(2), 187-217.
<https://doi.org/10.1177/0971852414529481>
- Walker, C. (2012). The information world of parents: A study of the use and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by parents of young children. *Library Trends*, 60(3), 546-568. <https://doi.org/10.1353/lib.2012.0000>
- Walls, J. K., Helms, H. M., & Grzywacz, J. G. (2016). Intensive mothering beliefs among full-time employed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7(2), 245-269.
<https://doi.org/10.1177/0192513X13519254>
- Wolfers, L. N., & Schneider, F. M. (2021). Using media for coping: A scoping review. *Communication Research*, 48(8), 1210-1234.
<https://doi.org/10.1177/0093650220939778>
- Xie, J., He, Z., Burnett, G., & Cheng, Y. (2021). How do mothers exchange parenting-related information in online communities? A meta-synthesi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5, 106631.
<https://doi.org/10.1016/j.chb.2020.106631>

1 차원고접수 : 2022. 10. 05.

수정원고접수 : 2022. 11. 29.

최종게재결정 : 2022. 12. 27.

The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Information-Seeking Channels, Parenting Competence, and Parental Role Stress of Mothers of 4th Graders: Differences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Park, Hayeon

Kim, Daewoong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information-seeking channels, parenting competence, and parental role stress of mothers. We examine whether these relationships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Accordingly, 300 mothers of 4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rom 4th year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Parent Educational Involv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dopted, and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bootstrapping.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role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s a moderator.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who used online and mass media channels as their main information-seeking channels, had higher parenting competence than mothers who mainly used offline channels. As parenting competence increased, parental role stress decreased. Second, this relationship showed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For employed mothers, the use of online and mass media channels increased their parenting competence, and reduced parental role stress. For non-employed mothers, the use of online and mass media channel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higher the parenting competence, the lower the parental role stress. Our results highlight the possibility of using online and mass media channels to relieve the stress of parental roles in times when the value and availability of educational information for children is increasing daily. The findings suggest practical directions for supporting employed mothers who are overburdened by performing both parental and professional roles.

Keywords: information-seeking channels, parenting competence, parental role stress, employed mothers, multigroup analysis